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4년 제9호

---

가족·커뮤니티·커먼즈의 미래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4년 제9호

## 가족·커뮤니티·커먼즈의 미래

### CONTENTS

#### <아젠다 기획>

초개인화 시대 커먼즈의 가능성:

측면적 행위성과 비주권적 관계의 장(류도향) ..... 04

‘인문커뮤니티’ 생태를 위한 지역인문학센터 ‘노뎃돌’의 성과와

새로운 지향: 팀 잉골드(Tim Ingold)의 ‘덩이(blob)’에서 ‘선(line)’으로

전환적 사유를 바탕으로(장복동) ..... 10

광주여성친화마을: 돌봄과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한 생태,

마을공동체 가능성 탐색(한주연) ..... 17

#### <정책보고서 리뷰>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24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 26

\*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 3호관

전화 062-530-5218 팩스 062-530-5219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 아젠다 기획

- 초개인화 시대 커먼즈의 가능성:  
측면적 행위성과 비주권적 관계의 장(류도향)
- ‘인문커뮤니티’ 생태를 위한 지역인문학센터  
‘노뎃돌’의 성과와 새로운 지향:  
팀 잉골드(Tim Ingold)의 ‘덩이(blob)’에서 ‘선(line)’으로  
전환적 사유를 바탕으로(장복동)
- 광주여성친화마을:  
돌봄과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한 생태, 마을공동체 가능성 탐색(한주연)

\* 기존의 가족 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 함께  
‘가족친화인문사회’의 도약을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한다.

\* 아젠다 기획논문은 개별 연구자가 향후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요약입니다.  
인용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초개인화 시대 커먼즈의 가능성: 측면적 행위성과 비주권적 관계의 장<sup>1)</sup>

류도향(인문학연구원, 교수)

## I. 들어가며

최근 커먼즈 담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사적소유와 이윤추구 패러다임을 넘어 자원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공유와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다.<sup>2)</sup> 이 글은 대안적 커먼즈의 힘을 이론적으로 성찰하여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포섭되지 않는 대안운동의 발현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소외된 비인가 대안학교 서울 성북구 ‘달꿈예술학교’를 커먼즈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여기서 출현하는 비의도적 커먼즈의 장을 해석해본다.

달꿈예술학교는 “현존하는 540개 대안학교도 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달꿈예술학교, 2018)로, 제도권·비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소외된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무상으로(재료비, 수업료, 후원금 등 일체의 비용 없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이곳은 ‘한 명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학교’를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 한 사람의 가치가 만남과 연대 속에서 발견되고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교육철학 하에 학교라는 단일 기능에 갇히지 않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커먼즈를 실천하고 있다. 학교는 카페, 전시실, 공연장, 게스트하우스, 거주민의 주거공간과 경계가 분리되지 않는 복합 구조를 가지며, 이를 통해 교육이 아닌 관계를 중심에 둔 공동화하기를 수행한다. 달꿈예술학교에서 나타난 커먼즈의 역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패턴을 갖는다.

첫째, 아래로부터 형성된 커먼즈는 개인주위와 경쟁주의로 점철된 사회체제에 명확하게 저항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보다는, 각 개인이 미묘한 방식의 일탈 또는 자신의 삶을 유지·보호하는 측면적 행위를 하는 개인의식의 초과 영역에서 발현된다. 둘째, 커먼즈는 일치된 집단성보다는, 협력의 기저와 표출방식이 제각각인 채로 애매모호성, 불확실성,

- 1) 현재 학회 투고중인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한디디, 『커먼즈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뽕간소금, 2024.

단절, 파열, 긴장 등의 비평형적 관계성으로 전개된다. 셋째, 커먼즈는 주류질서에 대립적으로 맞서는 대안 진영이 아니라, 주류와 대안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는 비주권적 위치성에서 자본주의적 영토를 재배치하는 정치적 잠재력을 갖는다.

## II. 달꿈예술학교에서 커먼즈의 형성

### 1. 개인의식을 초과하는 측면적 행위성

달꿈예술학교는 한 명의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오로지 그 한 명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맞춤형 수업을 하는 특별한 콘셉트의 학교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과 성장은 한 사람이 온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달꿈예술학교의 교사 및 운영자원은 이 학교의 비전에 공감하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유동적으로 공급되고 있다.<sup>3)</sup> 이런 학교의 운영방식은 합법적인 교육기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시설·설비 기준, 교지의 소유, 교육 과정, 교직원 배치 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달꿈예술학교는 한 사람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안교육을 목표로 삼지만, 이 목표를 이념적 도그마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사람’은 육체라는 테두리로 경계지어진 ‘개인’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의 다사다난한 역장”<sup>4)</sup>으로서 “사이의 between 관계들”<sup>5)</sup>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꿈예술학교의 목표는 한 사람을 관계적 통로이자 상호의존적 삶의 속성으로 발현시키는 것, 즉 다양한 관계의 교차로이자 타인을 통한 배움의 장을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

달꿈예술학교는 카페이기도 하고, 게스트룸이자 주거의 공간이고, 연습실, 전시관, 동네 사랑방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동네 손님들, 카페지기, 바리스타 교육생,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주민과 이방인이 뒤섞인다. 이곳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마주침과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따라 매번 다른 사건을 일으킨다.

‘1명의 학생을 위한 정규 학교’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런 마주침과 관계 형성을 위한 한 가지 장치이다. 성북구 미아동이나 근처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미술, 영어, 무용, K-pop, 마을탐방 등의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달꿈예술학교의 교사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수원, 대구, 제천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들며, 특히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서 미국, 중국, 알제리 등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 미국인 예술가가 게스트룸에 머무르면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충청북도 제천에서 매주 카페지기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중국인 유학생, 프랑스어를 가르치러 충청도에서 오는 알제리 출신 외국인도 있다.

달꿈예술학교는 고정된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관계맺음의 열린 장소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소의 힘은 달꿈예술학교의 참여자

3)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https://www.1365.go.kr/vols/main.do)를 통해 모집하거나, 수소문을 하고 기다림을 통해 구한다. 인터넷 매체, 달꿈예술학교 사무국, 동네를 오고 가는 이웃 그 밖에 ‘공간 달꿈’이 만드는 지역의 관계망을 통해서도 봉사자들이 유입된다.

4)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윤리학 정치학 잇기』,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22쪽.

5)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윤리학 정치학 잇기』, 65쪽.

들을 유입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달꿈예술학교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처음 여기에 올 때 뚜렷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저 공간에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호기심 또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한 모호한 기대감이, 동기라면 동기이다. 첫 방문의 의도가 분명치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실천도 어떤 하나의 동질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달꿈예술학교의 참여자들은 틀에 박힌 자신의 일상에서 일탈을 감행하고, 인사하기, 말 걸기, 쉬기, 외로움을 해소하기, 우연, 잡담과 같은 사소하고 비의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측면적 행위성(lateral agency)을 발현한다.

벨랜트(Lauren Belant)에 따르면 “측면성 행위성”은 “일반적으로 규범화되는 행위 주체의 목적 지향적·직선적·단선적 움직임과 구분되는 ... 옆걸음질, 엮나가기, 샅길로 빠지기 등 자기 방해 행위와도 같은 일종의 측면적 움직임으로 기술되는 행위주체성”<sup>6)</sup>이다. 달꿈예술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카페지기, 손님, 거주민, 이웃들은 “어떤 목적에 딱 들어맞는 방식으로 행위 주체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자체로부터 잠깐씩 휴가를 떠나는 다른 방식으로 행위 주체성을 경험”<sup>7)</sup>하고 있다. 이는 주체가 개인의식을 초과해서 너를 향해 나아가는 의식의 양태 혹은 나와 내가 접촉하여 스며드는 어떤 접촉의 양태로서 새로운 커머닝의 가능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6) 로린 벨랜트, 『잔인한 낙관』, 박미선·윤조원 옮김, 후마니타스, 2024, 215쪽.

7) 로린 벨랜트, 『잔인한 낙관』, 216쪽.

## 2. 집단정체성을 재배치하는 비평형적 관계성

달꿈예술학교는 단일한 집단정체성을 갖지 않는 열린 커먼즈로서 특징을 갖는다. 즉 학교의 구성원과 조직 방식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인을 받아들이고 타자의 관점에서 차이를 허용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공동체 조직은 구성원 간 위계나 차별을 방지하고, 자칫 학교가 소수의 참여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빗장공동체로 흐를 위험을 차단한다.

커먼즈를 유토피아적 대안으로 낭만화하는 대신, 손상된 삶을 복구하고 취약한 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비평형적 관계를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다. 각 개인이 집단정체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고, 나와 집단 사이의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탐지(detection)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체는 과도하게 숙련된 사회적 감각체계를 탈학습시키고 탈습관화시키면서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학습할 수 있다.

달꿈예술학교는 이러한 탈학습과 재학습을 위한 기다림의 공간을 자처한다. 타자적 존재들과 상호작용,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 속에서 학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늘 방법을 재탐구한다. 이 때문에 달꿈예술학교의 교육은 “머리로 깨달아 아는 지적 수준의 것이 아닌, 몸으로 함께 있어주는 몸의 언어”<sup>8)</sup>로 이루어진다. “함께 있는 것,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 즉 몸으로 부대끼며 모호하게 흐르는 시간을 통해 나와 너, 여자와 남자, 청소년과 성인, 장애와 비장애의 이항대립적 구도 속에 간헐 감각과 상상력이 해체되고, “서로 얽힌(interlaced) 신체들에 대한 감

8) 류한승, “달꿈예술학교의 철학과 역사”, 달꿈예술학교 내부기록물, 2023.

각”, 우리 몸에 새겨진 타자에 대한 수용성(receptivity)이 일깨워진다.<sup>9)</sup>

달꿈예술학교에서 모든 관계가 매끄럽고 조화로운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행위들, 사건들의 부딪힘 속에서 함께 있음은 계속된 갈등과 경합, 기다림과 뒤섞임의 혼란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소통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함께 있음은 매번 다른 판단과 배움과 즉흥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길이다. 달꿈예술학교는 애매모호함, 산만함, 대립, 실패를 허용하고 울퉁불퉁하고 비평형적인 관계의 패턴을 만들면서 개인과 집단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일시적으로 잠정적 통일성, 메타안정성, 느슨한 수업의 배치를 만들어낸다.

### 3. 주류/대안의 경계를 넘어서는 비주권적 위치성

달꿈예술학교는 공적으로 합법적 지위를 인가받지 않은 비인가형 대안학교이다. 입시 중심의 획일적 교육 내용을 넘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대안학교)에 따르면,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합법적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원에 따른 일정한 면적의 교지 소유, 교사자격증을 가진 상근교사 고용 등 상당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교육 당국은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비인가 대안학교’(자율 운영)를 구분하고 있다.

대안학교로서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관한 논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교육 당국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책을 추진하였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대안교육의 고유한 철학의 훼손, 자율적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 충족하기 어려운 인가 기준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제도화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sup>10)</sup>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갈등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대안 교육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규정하고, ‘도시형 대안교육기관’과 ‘징검다리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유형을 나누어 ‘체계적인 대안교육 커리큘럼 운영하는 기관’과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포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또한 신청의 최소자격 요건을 70㎡ 이상 공간, 상근교사 2인, 학생 수 10인 등으로 하여 달꿈예술학교처럼 단 한 명을 위한 학교, 탈북학생, 경계성장애학생, 미혼모 청소년 등 소수자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는 차별과 배제의 정책으로 작용한다.

9) 주디스 버틀러,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김용산 옮김, 창비, 2023, 13쪽.

10) 박영주·조진환·조영하, 「비인가 대안학교가 경험하는 갈등과 난제: 합법적 교육기관의 지위 획득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28집 제1호, 2021 참조.

**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공고**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
지원내용	① 교사인건비 : 교사 1인당 인건비 월 250만원 지원 ② 프로그램비(10~20명 상한 36백만원, 21~30명 상한 42백만원) ③ 친환경급식비 : 공교육과 동일한 지원 ④ 임대료 70%(연 상한 24백만원)
최소자격요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 서울소재, 2년 이상 운영, 70㎡ 이상 공간을 확보한 대안교육기관 상근교사 2인, 학생 수 10인, 프로그램 운영 10회/주 이상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원칙은 “보다 내실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sup>11)</sup>, 결국 ‘주류’에도 ‘대안’에도 속할 수 없는 이중적인 배제의 구조를 만들면서 소수 대안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를 낳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은 2023년부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사업>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사업>으로 변경하여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 정체성 확립 및 학업 복귀 지원”을 사업의 제1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대안교육의 본질인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 방향으로, 교육 기관의 형태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달꿈예술학교는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주류와 대안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는 비주권적 위치성을 통해 정형화된 사회 체제에서 정치적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주류사회의 대안으로 호명된 위치가 아니라, 주류와 대안의 경계 자체가 의문시되는 위치에서 주류 제도와 정책의 테두리로 포섭되지 않는 더 작고 다양한 소수자의 삶을 문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계의 위치에서 달꿈예술학교는 단순히 대안교육운동이 아니라, 나/너, 개인/공동체, 사적인 것/공적인 것의 이분법적 근대 상징질서를 교란하고 해체하는 이중적인 관계성 또는 단일 속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개별의 다양한 수행성을 파급하는데 진정한 커머닝의 의의를 갖는다.

**III. 나가며**

달꿈예술학교는 단순히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상징 질서를 교란하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커먼즈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가 지향하는 ‘한 사람을 중심에 둔 맞춤형 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열린 구조 및 유동적인 운영 시스템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관계적 실험을 가능케 한다. 이는 커머닝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성과 다양성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장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공동체 운동과 다른 현대 커머

11) 경향신문 2021년 5월 19일자 기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1년 새 비인가 대안 학교 55.3%, '서울형 대안교육 기관' 전환.

닝의 잠재력이, 주류와 대안의 경계를 해체하고 다양한 소수자의 삶과 실천을 엮어낼 수 있는 대안적 관계성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1년 5월 19일자 기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1년 새 비인가 대안학교 55.3%,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 로런 벌랜트, 박미선·윤조원 옮김(2024). 『잔인한 낙관』. 후마니타스.
- 류한승(2023). “달꿈예술학교의 철학과 역사”. 달꿈예술학교 내부기록물.
- 박영주·조진환·조영하(2021). 「비인가 대안학교가 경험하는 갈등과 난제: 합법적 교육기관의 지위 획득을 위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28집 제1호.
-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옮김(2021). 『비폭력의 힘- 윤리학 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 옮김(2023).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창비.
- 한디디(2024). 『커먼즈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빨간소금.

# ‘인문커뮤니티’생태를 위한 지역인문학센터 ‘노뎃돌’의 성과와 새로운 지향

## 팀 잉골드(Tim Ingold)의 ‘덩이(blob)’에서 ‘선(line)’으로 전환적 사유를 바탕으로

장복동(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1. 도시의 인문생태계

한국의 도시는 짧은 기간에 극심한 변화를 겪은 압축 성장의 후유증으로 도시공간의 사회적 분화(social segregation)가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는 과학기술과 공학의 발달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편리성이 확보된 반면, 도시사회의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체계의 결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실업문제, 각종 공공서비스와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불균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대 한국의 도시는 각 도시의 공간적 배치나 시간의 흔적을 철저히 무시하고 동일성의 기제가 지배하는 획일 도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강박관념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도시가 문화 창조의 공간이 아니라 건설공정표나 모듈로 규정되는 모양과 방법이 똑같이 반복되는 공간을 끊임없이 재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 삶의 바탕을 이루는 인문 문화적 토양을 심연으로부터 성찰하여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인문정신과 인문 문화가 바탕을 이루는 도시, 인문도시는 인간‘만’을 중심에 두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인문생태계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본성은 철저히 생물 사회적이며, 인간의 활동(행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즉 인간

이 된다는 것(human becoming)이 생물사회적 관계(biosocial relations)의 양상블로 구성된다.”<sup>1)</sup> 고 주장하는, ‘자연과 문명의 양상블’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문도시는 균일(均一)한 외장을 갖춘 도시에 균열을 내 고유의 문화와 지역성을 담은 다양한 문화도시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이 그리는 인문도시도 인문적 사유와 인문정신이 삶의 토대가 되는 차이의 문화가 공존하며 소통하는 다양한 ‘차이의 커뮤니티’를 선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é Ortega y Gasset)가 “인간의 삶은 항상 만들어지는 중이며, ‘이뤄져야 할 것[faciendum]’이지 이뤄진 것[facutum]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생명체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을 하기 위해 그 자신이어야 하는 반면, 인간은 자신이 인간이기 위해 자신이 행하는 것을 해야 한다.”<sup>2)</sup> 따라서 인문도시는 각각의 도시가 담고 있는 역사의 흔적과 삶과 문화의 실존적 양상이 자연과 문화가 양상블을 이루는 자체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나야 한다.

도시는 기존의 역사적 증거와 흔적들을 현재의 삶과 연계지어 형성되어야 한다. 각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진정한 문화의 원형과 역사적 삶의 모습이 전승될 수 있다. 우리는 ‘형성된 도시’와 ‘만들어가는 도시’란 분리된 두 개념으로 도시의 성장을 지켜보아야 한다. ‘형성된 도시’란 건설의 형태적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감내하며 형성된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녹아들어 상호관계를 가진,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를 의미한다. ‘만들어진 도시’는 이미 그전에 만들어진 의미에 적합한 몸체, 얼굴과 모양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는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의 형태학적, 인류학적 틀과 사회 구조 위에서 발전될 때 진정한 도시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과거의 형성된 기존 틀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곧 도시가 건설의 장소가 아니라 사회학적, 문화적 장소임을 말해준다.<sup>3)</sup>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가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묘사한 것처럼, “도시는 기억으로 넘쳐흐르는 파도에 스펀지처럼 흠뻑 젖었다가 팽창한다. 그러나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 도시의 과거는 마치 손에 그어진 손금들처럼 거리 모퉁이에, 창살에, 계단 난간에, 피뢰침 안테나에, 깃대에 쓰여 있으며 그 자체로 굵히고 잘리고 조각나고 소용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에 담겨 있다.”<sup>4)</sup> 맥락 없는 개발과 변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문학은 역사의 언어와 몸짓, 현재의 사유와 체험이 역사의 단층선으로 이어져 있는 삶의 생생한 모습을 새롭게 재현하는 것이다.

결국, 인문도시는 인문커뮤니티의 다양한 선들이 이어져 그 바탕을 이루며, 인간 삶의 유기적 결속과 연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인문도시는 문명과 자연이 생물사회적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접합된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2.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 인문커뮤니티 확산의 토대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이 지

- 1) Tim Ingold, Gisli Palsson ed., *Biosocial Becomings: Integrating Social and Bi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24.
- 2) 팀 잉골드,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차은정·권혜윤·김성인 옮김, OIUI, 2024, 226~227쪽
- 3) 테오도르 폴 김, 『도시 클리닉』, 시대의 창, 2011, 20쪽.
- 4) 이탈리아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현경 옮김, 민음사, 2015, 18쪽.

향하는 인문도시는 기술주의와 과학주의가 번성하는 학문적 흐름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인문학의 시민 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인문적 사유와 인간적 삶에 토대를 둔 인문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 ① 인문학은 사회성과 비판성, 성찰성의 확장을 통해 인간 삶의 내포와 외연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 ② 인문학의 소외를 해소함과 동시에 인문학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③ 고밀도 도시화에 내재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어떻게 도시의 인문생태계를 구성할 것인가?
- ④ 인문학에 바탕은 둔 인문도시의 구상은 비인간화된 도시에 자연과 인간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은 다음과 같이 연차별 목적의 흐름과 실천방안을 설정했다. ①관계의 역동을 통한 인문생태계 톺아보기: 인접성·타자성·지속성의 관점에서 개인·마을·공동체·국가 관계구조 탐색 → ②인문주체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인문학적 의제 도출 및 현실적 적용: 시민이 인문주체로 자리매김 되는 지속적인 인문 문화 지향 → ③초연결 사회에서 인문생태계의 실천적 재구성, ‘수용의 인문학’에서 ‘참여와 실천의 인문학으로’: 초연결 사회에서 인간소외·배제·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와 실천의 인문학 → ④인문체화(人文體化)를 통한 (가족커뮤니티) 인문학의 삶과 존재의 문화로의 뿌리내림: 도시에서 인문학의 지속적인 삶과 존재의 문화로의 체화. 실제로 이러한 목표와 의제는 도시의 인문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성취할 수 없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리 언급하자면, 이는 정량화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국책 사업의 한계를 내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의 시민 사회와 함께 인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설계이기도 한다.

2018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거족커뮤니티사업단 내에 지역인문학센터가 설치되면서 인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의 인문 문화를 정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21년 연구단 사업이 2단계에 진입하면서 인문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성찰로부터 인문학의 일상적 삶의 문화로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 자생적 인문 공부집단, 지자체의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인문강좌와 인문학 행사를 진행했다. 대학과 커뮤니티의 인문학자, 인문 활동가, 시민이 다채로운 인문주체로 만나는 인문강좌, 지역의 방송국과 연대하여 지역 고유의 인문 문화적 특성이나 현실의 시의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시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미디어 인문학, “경계 너머, 지역과 지역을 소통하다”를 표방하며 광주·빛

고을'과 대구·달구벌'이 인문학을 매개로 상호소통과 이해의 지평을 열어감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중앙집중에 대항하는 지방분권 담론 형성과 시민사회의 실천적 참여를 위한 인문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달빛 인문학', 시민 주체의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며 시민의 독서문화, 창작의지를 돋우는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시낭송회 및 시화전", 가족영화제, 커뮤니티 인문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과 인문학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인문마을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은 매년 '다성(多聲)의 인문학', '관계맺음의 인문학', '맞아들임의 인문학', '다채(多彩)의 인문학' 등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시민인문강좌(20~25강좌), 미디어 인문학(8~10강), 인문주간('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시낭송회 및 시화전'), 달빛 인문학(전·후반기 각각 6~8강), 가족영화제(가족·커뮤니티 관련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등을 실행했다.

특히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과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이 연대하여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소통을 위해 구성한 '달빛 인문학'과 '경북대학교-전남대학교 대학생 토론대회'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인문학을 매개로 대구와 광주 두 지역 시민들의 지역정신 교감과 활발한 문화·예술적 교류, 그리고 이를 통한 공감장의 형성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작단계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양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이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으로 실현되는 인문체험, 인문실천 행사다. 매년 인문주간에 열리는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와 "시 낭송회"(2024년 인문주간에는 자작시 낭송과 시화전 개최)는 20~30명 내외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이 삶과 존재의 바탕문화로 뿌리내린다는 지역인문학센터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사다. 아울러 참여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체적,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이 지향하는 시민인문학·실천인문학의 궁극적 목표가 다양한 인간들 사이에서 행위를 통한 인문소통과 실천에 있다면, 정치적 삶에서 다원성을 '필요조건'이자 '가능조건'으로 강조하는 한나 아렌트의 주장에서 지역인문학센터의 실천적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

행위는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이다. 행위의 근본조건은 다원성으로서 인간조건, 즉 보편적 인간[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들[men]이 지구에 살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상응한다. 인간 조건의 모든 측면들이 다소 정치에 관련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원성은 모든 정치 삶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 가장 정치적인 로마인의 언어에서 '살다'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또는 '죽다'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동의어로 사용된다.<sup>5)</sup>

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56쪽.

### 3. 지역인문학 센터의 새로운 지향 - ‘덩이’에서 ‘선’으로 전환하는 인문커뮤니티



위 그림은 뮌헨에서 최초로 기획된 이슬람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고 파리로 돌아온 마티스가(Henri Matisse)가 1910년 살롱 도톤(7년 전부터 시작된 현대미술을 위한 연례 전시)에 출품한 <춤Ⅱ>다. <춤Ⅱ>는 또 다른 그의 작품 <음악>과 함께 비평계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팀 잉골드(Tim Ingold)는 <춤Ⅱ>를 통해 자신이 내세운 ‘선학(線學)’의 중심 개념인 선의 원리와 덩이의 원리에 기초하는 아상블라주(assemblage)를 대비하여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마티스가 <춤Ⅱ>에서 인간의 형상을 풍만하고 둥글며 윤곽이 뚜렷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치 단순한 덩이처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팔과 다리가 주요하게 그리는 선들의 앙상블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덩이들이 활기에 넘친다.<sup>6)</sup> 이 작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맞댄 손바닥과 갈고리처럼 구부린 손가락이 잇대는 손들의 연결 자체가 일체감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선이 손과 손을 매듭처럼 잇대어서 영구적으로 막 닫히려는 회로는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회로는 그림 속 앞 두 인물의 손들이 연결되는 순간 닫히겠지만, 끝끝내 닫히지 않는다.<sup>7)</sup> 인문커뮤니티의 측면에서 의미화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닫힐 수 있지만, 끝끝내 닫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상블라주가 덩이라는 영토화의 원리로 한정지어진 폐쇄적 집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덩이들의 세계에는 사회적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상블라주에서는 댄서들이 돌로 변해버린 듯 움직임이 전혀 없다. 때문에 아상블라주이론은 너무 정적이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실체들이 어떻게 서로 결속되는지에 대해 답할 수 없다.

선의 원리는 탈영토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우리가 사회적인 것에 다시 생명을

6) 팀 잉골드,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차은정·권혜윤·김성인 옮김, OIUI, 2024, 226-227쪽.

7) 같은 책, 21쪽.

불어넣게 만든다. 따라서 선으로서의 삶에서 부분은 구성요소가 아니라 움직임이다.<sup>8)</sup>

마티스의 그림에서 춤은 음악적으로 말하면 5성의 인벤션[자유로운] 형식의 성악곡이 기악곡이라 할 수 있다. 각 연주자가 멜로디를 택해 연주해 가면서 이미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에게 또 다른 대위의 선율을 안내한다. 각 선율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응한다.<sup>9)</sup>

위에서 잉골드가 마티스의 그림에서 춤과 음악을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듯이, <춤Ⅱ>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결론은 그림에 나타나는 개인들과 그들의 선형적 관계는 이상블라주가 아니라 둥근 문양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나란히 배치된 덩이들의 콜라주가 아니라 뒤얽힌 선들의 화환(花環)이며, 따라잡고 따라잡히는 소용돌이다.”<sup>10)</sup> 스탠리 카벨(Stanley Cavell)의 말을 빌리자면, 생명은 “유기체의 소용돌이(the whirl of organism)”다. 생명의 생태학은 실과 자취의 생태학이지 교점과 연결 장치의 생태학이 아니다. 생태학은 선으로서의 삶에 대한 학문이다.

잉골드는 그 선을 인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이 새롭게 지향하는 인문적 삶의 세계도 잉골드의 ‘덩이’에서 ‘선’에로의 사유의 전환에 바탕을 둔다. 그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겪는 삶 속에서 틀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삶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응답하면서,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대응의 원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덩이’ 곧 ‘영도화된 집단’으로 구획 지어진 닫힌 네트워크 상의 커뮤니티를 벗어나, ‘탈영도화’된 선으로 뻗어나가는 커뮤니티를 직조할 수 있는 인문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역인문학센터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덩이에 없으면서 선에 있는 것은 비틀림, 구부림, 활발함이며, 선이 생겨나 덩이의 독점에서 벗어났을 때 생명이 시작되고, 따라서 선은 우리에게 삶을 주기 때문이다.”<sup>11)</sup>

잉골드는 “덩이가 할 수 없는 것은 서로 붙잡기”라고 주장한다. 붙잡으려면 적어도 포용의 친밀성 속에서 각자의 개별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덩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덩이가 내부에서 뒤섞일 때 그 표면은 언제나 새로운 외부가 형성되는 가운데 용해되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덩이의 연합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는 선들의 뒤얽힘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붙잡히는 연쇄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적이지 않은 삶, 즉 선들의 뒤얽힘을 수반하지 않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문학이 사회적 삶의 바탕을 이루는 인문커뮤니티에서 베르그손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삶의 각 순간들은 일종의 창조이며, 우리는 삶의 제작자(artisans)로 살아간다.<sup>13)</sup>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는 자이는 지속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는 심리적 상태는 잇따르는 상태에 의해 대치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견고한 것[자아] 위에서 꿰어진 견고한 것들[상태들]은 결코 흐르는 지속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얻는 것은 내적 삶의 인위적 모방이자

8) 같은 책, 22쪽.

9) 같은 책, 23쪽.

10) 같은 책, 같은 쪽.

11) 같은 책, 18쪽.

12) 같은 책, 17쪽.

13) 앙리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황수영 옮김, 아카넷, 2018, 29쪽.

정적(靜的)인 등가물(等價物)이기<sup>14)</sup> 때문이다.

장 그르니에(Jean Grenier)의 『섬』 서문을 쓴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시간을 역류(逆流)하고 공간을 횡단(橫斷)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모이는 도시사람들의 흔적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듯하였고, 우리 도시의 높은 언덕배기에서 내가 수없이 끼고돌던 높은 담장들에 둘러싸인 채 그 너머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동꽃 향기만을 건네주던, 가난한 나의 꿈이었던 저 은밀한 정원들 중 하나가 마침내 내게로 열려오는 것만 같았다.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과연 비길 데 없이 풍성한 정원이 열리고 있었다.” ‘공부하면서 사유하고 실천하는 인문시민’을 지향하는 인문커뮤니티 광주를 구상하면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문시민의 정원이, 풍요롭지만 과시할 만큼 넘치지는 않는 ‘사이-존재들’(between-being)의 독특한 삶의 언어와 방식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 속의 조화’ 혹은 ‘엇갈림 속의 만남’이 광주리는 도시 존재의 새로운 여백으로 열리기를 바랐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는 인문커뮤니티 광주의 지속적인 ‘노뎃돌’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14) 위의 책, 25쪽.

#### 참고문헌

-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 옮김(2018). 『창조적 진화』. 아카넷.
- 이탈로 칼비노, 이현경 옮김(2015). 『보이지 않는 도시들』. 민음사.
- 테오도르 폴 김(2011). 『도시 클리닉』. 시대의 창
- 팀 잉골드, 차은정·권혜윤·김성인 옮김(2024).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이이.
-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 Tim Ingold and Gisli Palsson(eds.)(2013). *Biosocial Becomings: Integrating Social and Bi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광주여성친화마을: 돌봄과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한 생태, 마을공동체 가능성 탐색

## 한주연(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여성친화마을은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를 일상생활에서 추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인간의 돌봄 본성을 일깨우고, 돌봄의 범주를 확대하고, 자신과 주변인을 성장시키는 커머닝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광주여성친화마을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친화마을

#### 1. 여성친화도시 정의와 역사

##### 1) 여성친화도시의 정의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에 의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6)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모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구현되는 생활밀착형 성평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교육자료,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친화마을)

#####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부터 거주환경, 도시여건 측면에서 성 평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6년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007년 대구 혁신도시 계획과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광고신교시 계획,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와 같은 도시공간 정책 분야에서 이뤘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 1호’로 처음 지정하게 되고,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은 하나의 제도이자 젠더 거버넌스 모형으로 명문화되었다. 2009년 이후 2023년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104개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친화, 장애인 배려, 이주민 정책 등 모든 지역정책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므로 법적구속력이나 의무이행의 당위성이 없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에 있어 협약을 통해 법적절차처럼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브랜드 이미지는 제고하면서 구속력은 크지 않다는 편리성이 지자체에게는 큰 부담감 없이 여성친화도시에 접근하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지자체 전체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으로 추진되지 않고, 여성정책전담부서만의 업무로 축소 추진되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sup>1)</sup>

1) 이주영, 「젠더 거버넌스 이행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의 일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1-12쪽.

## 2. 광주여성친화마을

### 1) 광주여성친화마을 현황

광주광역시시는 2011년 12월,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 광역모델로 주목받았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자치구로도 확대되어 현재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가 구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시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코칭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여성친화마을의 정체성 방향성 정립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광주여성친화마을은 주거지를 근간으로 하는 생활공동체에서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여성친화마을 사업은 광주여성친화도시만의 특화사업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광역시도들은 여성친화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침에 있는 사업들과 지자체별 특화사업을 하는데 반해 광주광역시시는 광역모델 지정에 힘입어 좀 더 광범위하고 큰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 특화사업을 2012년부터 운영중이다.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은 약 1억~1억 5천만원 규모로 단독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4년간 공모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여성친화마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3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참여한 마을수는 총 65개 마을이다. 신청단체 유형은 작은도서관, 주자치위원회, 협동조합, 마을 여성 모임, 동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캠프 등이 주를 이루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조직보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마을 여성 모임, 마을공동체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여성친화마을의 추진체계의 특징은 젠더 및 여성친화마을 사업 추진 경력자들로 구성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공모사업외에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코칭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친화마을이 여성친화도시로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마을에 필요한 젠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사업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초점은 젠더관점과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맞춰져 있고 이를 근간으로 마을활동가들이 기획한 여성친화마을 사업들이 사업 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갖도록 하고, 이런 방향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젠더역량, 마을공동체사업역량을 키워준다. 또한 코칭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간 네트워킹,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 2) 광주여성친화마을의 활동 분야 및 내용

### (1) 돌봄분야

돌봄분야로는 상시돌봄, 세대돌봄, 남성양육자 돌봄 등의 분야가 있다. 상시돌봄은 방과후돌봄, 방학기간(점심제공 포함) 돌봄이 주요 내용이고 세대돌봄은 마을 노인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을 운영하거나, 아이들의 먹거리나 이동을 노인들이 책임역할을 해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세대돌봄을 추진한 마을은 전체 138개 여성친화마을중에 3개 마을로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마을 돌봄 유형으로 의미가 있다. 남성양육자 돌봄은 지금까지 1곳이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아빠들로 구성된 돌봄기획단이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통해 물놀이, 캠핑, 역사견학 등의 돌봄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여성친화마을사업중에 많은 분야가 돌봄 분야이다. 마을살이를 하는 여성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욕구 파악도 쉬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실제 본인이 그 시기를 갖 지나오거나 그 시기 속에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을 조직하기도 쉽다. 여성친화마을의 돌봄은 마을작은도서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과 같은 유휴공간, 때로는 마을공원 정자 등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은 학교 방과후와 학원이 시작하는 사이, 학원과 학원사이, 학원이 끝난 후 양육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안전하고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마을 돌봄사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마을 활동가들은 안정적인 공간에서 규칙적인 운영시간을 가지며 오가는 아이들을 돌본다.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사이사이 시간에 어른의 안전한 돌봄이 필요하다. 크게 돌봐주지 않아도 나를 따뜻하게 지켜보는 좋은 어른의 눈빛으로 그 시간을 안정감있게 지낸다. 시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틈새를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매워주는 공간이 여성친화마을 돌봄사업이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경력중단 여성들의 디딤돌 역할도 하게 된다. 대부분 육아문제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면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림책 읽어주기,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비누, 샴푸 등), 전문 교과목 강의 등이 그것이다. 경력 중단의 시기를 겪은 사람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주부역할만 몇 년하다보면 그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 그럴 때 나를 응원해 주는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공익적 성격도 있는 마을돌봄에서 내 역량을 활용해 보는 것은 이 여성들에게는 좋은 성장의 기회이자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이다. 아이도 크고, 여성들도 성장하는 마을돌봄이 여성친화마을 돌봄의 강점이다.

### (2) 여성역량강화분야

여성들은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 비임금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더 그렇다. 여성역량강화분야 사업은 처음에는 코바늘 뜨기, 재봉틀로 살림 소품 만들기 등의 취미 정도의 교육으로 시작했다가 참여자들의 요구와 여성친화마을들의 사업적 발전으로 민간자격증과정으로 발전됐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리 가지 않아도 주거지 근거리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슷비슷한 실력과 마을의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신만의 상품을 제작할 수도 있고, 방과후 교실이나 마을공동체에 강사로 나갈 수도 있다. 이 과정 자체가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시작했던 작업들은 상품제작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폴리마켓에 나가보고 경험을 쌓으며 상품 기획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면서 트렌드 분석, 원단선택, 단가 책정, 주문과 결제, 세금관련 경험을 쌓게 된다. 경력 중단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친화마을 활동가나 참여자들이 단번에 창업을 할 수는 없다. 여성친화마을 역량강화분야처럼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 가면서 창업,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마을별로 브랜딩 수업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속에서 몇 개의 마을이 힘을 합쳐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경제로 진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사회적 경제로 진출한다고 해도 갑자기 매출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지만, 여성들 스스로 경제적 역량을 키워가고 성장해 가는 의미를 가진다.

### (3) 성평등 마을 분야

성평등 마을 분야는 돌봄이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성장한 마을이 성평등 마을로 확장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구술채록을 통한 마을 여성사 발굴, 성평등 북토크 및 영화상영 행사 등 성평등한 주제를 마을공동체 대상으로 여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아직 여성친화마을분야에서 활성화된 사업 주제는 아니지만, 돌봄, 여성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친화마을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안에 성평등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체감을 가진 여성친화마을이 성평등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공동체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교육이 필요하고, 성평등 관점을 체득할 수 있는 문화행사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체계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 등에 여성 위원들을 추천해 여

성리더들의 성장을 돕는다. 여성단체들이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마을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 III. 광주여성친화마을 사업의 돌봄과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한 생태, 마을공동체 가능성

돌봄선언(더 케어 컬렉티브, 2021)에서는 돌봄을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며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신자유주의가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과 자기 향상의 틀 안에서만 추구하는 기업적인 개인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위축되었고 자기 자신, 돌봄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도 취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돌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이며, 이 능력은 이 지구상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과 생물체들이 번성하고, 지구도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사회적, 물질적, 정서적 조건을 마련한다고 했다.<sup>2)</sup>

여성친화마을의 돌봄을 돌봄선언의 돌봄 관점으로 분석해 보자면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돌봄의 본성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친화마을 돌봄은 마을, 아파트 단지 단위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상설 돌봄 공간이다. 여기에 돌봄 활동가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로 본인들도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기를 금방 넘긴 당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공간에서도 자주 마주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또한 양육과 인생에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을돌봄 이용자들의 필요 욕구에 대해 공감도가 높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 외에도 장시간 여성친화마을 돌봄을 관찰하고 함께 하면서 발견했던 2가지는 참여하는 여성들의 성장과 돌봄 영역의 확대이다. 이곳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중단되어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돌봄공간 이용자들이 시작했다가, 점차 운영진으로 돌봄 선생님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 마을공동체의 리더로 성장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 재진입 시 좋은 디딤돌이 되는데 여성의 경력중단 이후 사회재진입은 진입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큰데 마을돌봄 공간에서 운영진과 선생님이 일한 경험들이 이런 사회 재진출에 굉장한 자기효능감을 준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여성친화마을의 네트워크 또한 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돌봄 대상의 확대인데 마을 노년층,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활동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마을 남성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할배 요리사’ 수업을 열어 할아버지들이 스스로 경로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했고, 손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요리를 제공하는 기쁨을 알려주기도 했다. ‘할배 요리사’ 한 참여자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메뉴에 대해 ‘오란다 과자’를 예로 들었는데 그 이유는 손자녀에게 무언가 만들어 줬고 그것

2)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14-18쪽.

을 손자녀가 맛있게 먹어준 것에 대한 기쁨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을 돌봄선언의 관점의 ‘돌봄’을 수행하는 일이며, ‘상호의존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인간 본성인 돌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또한 이들이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다양하게 시작했는데 이것은 돌봄의 대상을 비인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도는 여성들이 높는데 이는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돌봄을 하며 더 많은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많은 공동체원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는 활동들을 추진한다. 교육, 줍깅,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다회용 물품 제작, 다회용기로 마을 행사 치루기 등이 그 내용이다. 공동체 돌봄을 하며 길러진 돌봄 감각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를 더 높였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내었다.

류도향(2022)은 관계적 주체와 ‘함께-말하기’의 조건에서 이질성과 특이성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합리성의 소통이 아닌 물질적, 감성적, 정동적 차원에서 수행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먹기, 놀기, 응답하기가 일상적 실천으로 유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함께 먹는다’는 총체적 소통의 근본언어이고 ‘함께 놀기’는 참여자들간 주고 받고 밀고 당기는 능동성과 수동성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며 이 과정에서 주체, 객체의 이분법이 사라지고 대상과 비의도적, 비도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했다.<sup>3)</sup> 여성친화마을의 많은 활동이 ‘함께 말하기’와 ‘함께 놀기’의 시작점이 된다.

3) 류도향, 「관계적 주체와 ‘함께-말하기’의 조건」,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제61권 3호, 2022, 59쪽.

#### 참고문헌

- 광주여성가족재단(2021). 광주여성친화마을 10주년 정책 포럼 자료집
- 더 케어 콜렉티브(2021). 『돌봄선언』. 니케북스.
- 류도향(2022). 「관계적 주체와 ‘함께-말하기’의 조건」,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제61권 제3호.
- 이주영(2021). 「젠더 거버넌스 이행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의 일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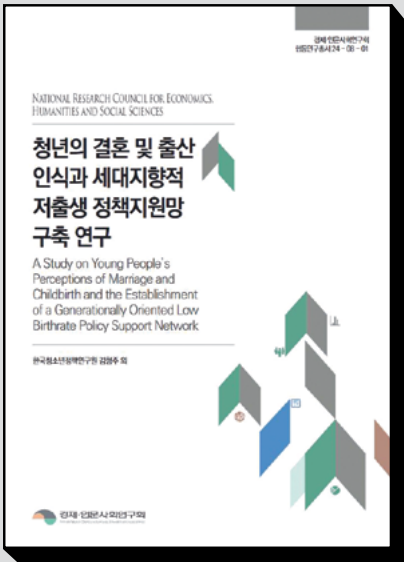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 FOCUS

## 정책보고서 리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정책보고서 리뷰」는 올해 정부의 가족커뮤니티 관련 정책과제 및 연구를 소개합니다.



##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책임 : 김형주

출판일 : 2024년 8월

종류 : 협동연구총서

원문출처 : <https://www.nrc.re.kr>

### <배경>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초저출산이란 용어가 빈번히 사용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 연구는 청년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체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 친화-세대 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을 제언함

### <주요내용>

#### 청년의 결혼 및 저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들

- 청년 신혼부부의 부부 합산소득은 출산 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 합산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 자녀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내의 교육 정도는 남편보다 출산 자녀 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전업주부인 경우 자녀 수가 소폭 증가함
-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내에서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평균 기대치와 기대 비용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

- 거주지 및 주거 환경의 특성도 출산 자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있음
- 20대 청년이 30대보다 행복 인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며 결혼할 의향이 있음과 관련이 있는 행복 영역은 사회 전반의 안전, 미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취업 준비생, 대학 재학생 등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에서 높은 불안정성과 함께 결혼 의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능성이 있음
- 청년의 분가의지는 결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청년의 분가의지가 강할수록 결혼의식도 높고 출산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심층면접 내용 및 정책제언

- 결혼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나 배우자에 맞춰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행복과 경제적 안정 모두를 충족할 수 있음
- 높은 집값과 물가로 결혼 자금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현재를 즐기고 개인의 행복을 큰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청년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침
- 미혼 청년의 결혼에 대한 높은 기준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며 우선적으로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은 결혼 기피로 이어짐
- 출산의 필요성은 정서적 안정, 불필요성은 개인의 자유 및 행복과 관련이 있음
- 출산의 필요성에서는 소수에서 결혼 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주체적인 입장 이면에 필수적 관문으로 생각하는 배경이 작동한 것으로 추정됨
- 출산을 위한 최소 소득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며 출산의 필요조건에는 직장과 주거 안정성이 전제됨. 더불어 자녀 출산을 위한 최소 거주 규모는 20평대라는 의견이 일반적임
- 청년은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초저출산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여기고 있음
- 청년 복지 분야에 기초 자산 조성을 위한 결혼 준비자금 금융 지원 등, 청년 주거 분야에 신혼 부부 전세보증금 지원 금융 혜택 확대 등, 청년 육아 분야에 부모와 자녀 육아 조력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 법제도 및 기반 조성에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저출생 정책 인지도 제고 등과 연관해서 17개의 정책과제가 제안됨

###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사회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극복 가능하다는 제언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도, 사회에 대한 안정감 제고, 미래에 대한 불안 상쇄의 노력을 수반하여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청년세대가 지향하는 현재 삶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저출생 정책 마련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책임 : 강현미

출판일 : 2024년 11월

종류 : 협동연구총서

원문출처 : <https://www.nrc.re.kr>

### <배경>

초저출산에 대응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 증가, 공공의 아동복지서비스 분산으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결 시급,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돌봄체계 재편의 필요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공백 해소의 균형이 필요해지고 있음. 이 연구는 아동에 대한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근린 유형별로 제안함

### <주요내용>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환경 및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돌봄실태 및 수요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특수지역) 단위보다 근린 단위의 환경이 돌봄실태와 욕구에 영향력이 있음.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도보시간 기준으로 고밀-근거리통학, 고밀-원거리통학, 저밀-근거리통학, 저밀-원거리통학 근린 유형으로 구분. 저밀-원거리통학 근린 유형이 학기 중 돌봄수요가 높고 학교 안밖의 공적 돌봄활용이 많으며 동네의 시설이용이나 도보 통학비율이 가장 낮음
- 근린 놀이환경과 보행환경은 아동의 발달과 관련되는 독립적인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활동에서 매

우 중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돌봄공백은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공백에 대해서는 또래와 함께하는 양질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근린 단위의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근린환경의 생활인프라 격차는 양육자의 돌봄부담 및 돌봄공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학교돌봄이 종료되는 시점인 초등학교 3학년이 겪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양질의 공공수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공공 수업에 대한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 수단 확보가 필요함
- 아동의 근린 외 통학은 장거리 차량 탑승의 피로 누적, 미디어 접촉 증가 외 근린 내 활동에 기반한 또래와의 교류와 신체활동 및 놀이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지역의 돌봄수요 초과분을 학교-지역 간 연계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근린 내 돌봄보장, 공공 생활인프라를 통한 통합된 활동 장소를 돌봄공백 해소와 생활시간 균형차원에서 지향해야 함. 일부 돌봄시설에 대한 내부 공간 재구성,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아동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긴급 돌봄 및 이동서비스 확충이 중요함

### 돌봄안전과 아동성장의 통합지향, 단시간 돌봄공백의 건강한 전환,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아동 돌봄환경 개선에 유의미한 제언들

- 고밀-근거리통학 근린은 근린 내 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고밀-원거리 차량 통학 근린에서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를 확대함. 저밀-근거리통학 근린에서는 도보권 내 공공거점시설 확충으로 근린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저밀-원거리통학 근린은 학교중심 공간 개선으로 아동 활동의 구심점을 확보해야 함
-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시설 분산 배치를 전략적으로 채택, 고밀-원거리통학 유형은 통학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고밀 근린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저층주거지 간 격차 해소 과제 있음.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거점 생활인프라와 연계하여 도보거리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고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거점 생활인프라와 연계하여 도보거리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 향상, 지역 내 소규모 자원을 연계하면서 차량 이동시간을 줄이되 방과 후 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과 활동 다양성 간 균형 확보 모델이 필요함
-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실행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공급계획 수립과 보장, 방과 후 돌봄수요 조사의 체계화, 돌봄권역의 설정, 방과후 돌봄의 성과 측정, 돌봄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와 관련된 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함

### <시사점>

이 연구는 아동 돌봄실태 및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와 이에 관련된 근린 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음. 양적·질적 연구에 기반한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돌봄환경에서의 근린 특성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에 기반하여 공격적 돌봄개선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